

2002 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1 회 세계한국학대회

문화의 탈지역화와 한국문화연구:그 방법론적 모색

윤 택 립 (미래인력연구원)

1. 문제제기: 현대 문화의 탈지역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발표문은 현대 문화적 상황의 특징 중의 하나를 문화의 탈지역화로 보고, 한국 문화 연구자들-특히 인류학자들이-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전지구화(globalization), 국제화, 정보화는 더욱 더 문화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문화의 혼성과 분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력, 자본, 정보의 급속한 이동은 특정 문화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유된 생활양식이나 상징체계라고 말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근거한 문화의 개념은 더욱 더 성립되기 힘들어 지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족사회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해 왔던 서구 인류학에 있어서 비서구사회의 문화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었다. 식민지 시대 이후 발전된 서구 지역학에서도 문화가 지역에 의하여 구분되고 형성되고 개념화되는 현상은 강력하게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현재 문화의 탈지역화 현상은 지역에 기초한 문화 연구에 익숙한 인류학자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연구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인류학자들은 1980 년대부터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강타한 포스트모던니즘의 영향으로 인류학의 문화연구에 대한 자기성찰적 질문을 해 나가면서, 문화의 탈지역화 현상을 탈근대, 탈식민적 상황으로 이해했다. 한국인류학자들도 1990 년대부터 문화의 탈지역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문화의 분절화, 경계의 문화, 정체성의 정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인류학자들이 의한 지역연구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연구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탈지역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탈지역화 현상이 인지되고 그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고 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즉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를 인식하고 그것에 적합한 접근 방식과 연구방법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한국문화가 한국 그것도 남한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대로 전승해온 고유한 생활양식이 아니고,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일본과 서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한국인들의 이민으로 인해 세계도처에 다양한 재외한인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한국문화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 문제말이다.

이 발표문은 탈지역화하는 한국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선 왜 한국 문화의 탈지역화라는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연구되고 있지 않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일차적으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류학자들이 해온 한국 문화 연구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검토해보고, 다른 한국학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국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발표문의 다음 부부는 탈지역화한 한국문화 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과 연구 방법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류학 현지조사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연구하는 방식과 글쓰기에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했던 포스트모던 인류학자들의 새로운 방법론적 모색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서구에서의 탈지역화된 문화연구를 위한 모색은 한국문화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연구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II. 한국문화는 탈지역화하고 있는가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아직도 한반도라는 지역에 사는 한국인의 문화라는 차원과 세계도처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재외한인들의 문화라는 차원이다. 한국문화를 한반도라는 지역적 경계를 구분하여 놓고 보더라도 한국문화는 우선 분단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남북한의 문화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한국문화연구, 또는 한국학은 거의 남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반도라는 지역적 경계도 사실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수사학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의 문화적 상황이나,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한내에서의 한국문화도 세대, 계층, 직업, 지역, 성에 따라서 많은 하부문화들이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양한 종족, 문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남한 내의 한국문화의 다양성은 날로 더가해고 있다. 또한 지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근대화, 산업화, 서구화의 과정은 남한의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다국적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있고, 그 안에서 문화의 혼성(hybridity)와 분절이 일어나고 있다.

재외한인들이 이주민사회에서 만들어온 이주민문화도 한국문화라고 분류되어 한국학에 속해왔다. 재외한인들의 문화는 그들의 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정착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문화적 형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의 한국문화는 분명히 이주민사회와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문화적 혼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한인들의 문화는 고유한 한국문화의 보존이나 변형이라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문화의 탈지역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변경의 문화(borderland), 또는 틈새문화(interstitial zone)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사회 내에서,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 내에서도 이러한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는 인식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아직도 한반도라는 지역에 근거하는 고유한 통합된 한국문화라는 사회적 담론이 강력하게 대중적 및 학문적 한국문화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 상황을 야기하는 요인과 그와 밀접히 연관된 한국문화연구의 지형을 살펴보겠다.

1.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주의

한국사회에서 한국문화는 아직도 초월적 신성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제시대 저항 민족주의사학이 보인 한국문화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시 한국문화연구는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민족의 개별성, 고유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해방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1960년대, 70년대를 거쳐 국가가 문화의 지배적인 생산주체가 되었다.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문화는 특정한 문화유산을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만들면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의 국수주의적 민족문화가 계속 재생산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정권에 도전하는 저항적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서 민중문화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한국문화는 국가 주도의 것이던, 저항 집단의 것이던, 그 주체만 달라질 뿐이지, 그 특성은 초월적인 신성성이었고, 그것은 한국의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제시대 민족주의 사학에서도, 60,70년대 국가주도의 국수적 민족주의에 의해 한국인이 단일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민족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인의 정체성의 기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바탕은 한국인의 고유한 한국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한국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은 과거의 문화에 대한 향수와 복원을 주장하면서 특정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한국문화를 정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대대로 전승되어온 변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적 유산이라는 고유성과 과거성, 불변성의 수사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통문화들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해 보면, 유교전통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전통문화란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중적인 한국문화론에서나, 민족문화, 민속문화, 민중문화에서나, 한국문화는 순수하고 고유하고 단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협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에 젖어 있다.”. 이렇게 단일문화주의적으로 한국문화를 보게 되면, 한국문화 속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하고 한국사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를 획일적으로 보게 된다. 즉 대외적으로 타문화와의 차별성만을 강조하면서 문화 내적인 갈등이나 다원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주의는 한국문화를 불변의 초월적인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탈맥락화하고 물역사화한다. 한국문화가 이렇게 인식될 때, 한국문화의 탈지역화라는 것은 인지될 수가 없다. 한국문화의 역사성과 내적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문화는 탈지역화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한국문화의 탈지역화 현상을 인지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연구의 대상과 주제로서 상정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화 연구 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 인류학에서의 한국문화 인식: 장소의 인류학

한국문화를 단일문화로 보는 경향은 사실상 초기 한국인류학 연구에도 드러난다. 초기 한국인류학자와 서구 인류학자들에 의한 한국문화연구는 “한국사회 구조의 원리를 찾아서” 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인류학계에서 수행된 한국문화연구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원형, 구조 또는 전통을 연구하는 것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서구인류학자들도 한국의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구조의 특성을 밝히는 일을 중시했다. 특히 한국을 연구한 서구인류학자들이 대체로 사회인류학의 강한 영향 아래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 사회인류학자들은 사회의 구조를 통해서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다. 대체로 1980년대 이전의 인류학자들의 한국문화연구에서 한국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구현되는 자체 완결적인 실체로 보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인류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문화의 단성성(univocality)을 잠정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문화의 단성성은 문화결정론에 기반하고 있으면, 민족, 단일문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구인류학이 비서구를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단일하고 정형화된 문화로 개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이 한국인류학자들의 한국문화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인류학계의 한국문화연구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때 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의 농촌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인류학은 기존의 주가 되었던 한국사회연구에서 벗어나 해외한민족 연구와 타문화 연구가 활발해졌다.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인류학자들의 타문화 연구들이 한국인류학자들에 의한 지역연구로 발전하였다.

한국인류학계에서 지역연구의 발전은 한국인류학이 자국인류학(native anthropology)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타문화로 연구의 대상과 관심을 확대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연구는 또한 그 발생부터 문화연구를 지역 경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설정의 정치성과 지역경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활발해진 지역연구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하여 그 지역의 중요성의 경, 중이 가려졌고,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도 따라서 정치경제적인 변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연구에서, 환경구에 의하면, 동아시아적 특질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아시아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거나, 또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범주와는 상관없이 산업화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가 다른 지역들과 상이한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서양과 접촉하게 되면서 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아시아는 자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예로서 남태평양이라는 지역연구는, 이태주에 의하면, 남태평양이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로 구분되는 것도, 각 문화영역들을 특정한 문화특질로 유형화시킨 것도 서구학자들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볼 때, 지역연구가 서구식민주의로부터 시작된 인종주의와 인류학의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태주가 요약한 남태평양 지역연구에서 드러나는 문화영역 개념에 대한 비판은 지역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 비판은 문화경계는 중첩되고 혼합되고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는 유동적 개념인데, 이것을 부동의 경계로 고정시키고 문화를 지역화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문화영역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식민주의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마지막 비판은 문화영역개념은 식민지적 권력구조에 의해 지역의 계층화와 차별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문화 특질과 전통의 재창조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단순화, 동질화, 유형화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인류학자들의 지역연구에서도 현대 문화의 탈지역화를 지역연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으로 보인다. 이에 ‘프로세스적인 문화 개념’을 제시되기도 하고, 이민(diaspora) 연구, 식민주의와 이주 노동자 연구, 탈식민과 발전의 지배담론 연구, 등 문화의 탈지역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 주제들과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연구는 특정 지역중심의 문화개념과 문화유형론에서 벗어나 문화의 탈지역화를 다루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의 개발이 절실하다.

3. 한국학에서의 한국문화 인식: 민족문화의 한국학

한국학의 태동과 그 발달해온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의 한국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학적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준다. 구한말부터 증가하는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서 고양된 민족의식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이르러 주권 회복을 위한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월성을 내세웠다. 이러한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한국학 연구는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이 국문학, 역사학 등 전통 학문과 구분되는 한국학 고유의 영역이나 대상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학이란 매우 포괄적 의미의 ‘한국에 관한 연구’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학문 분과에 상관없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각자의 학문분과 내에서 한국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 모두 한국학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학 특유의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은 한국학을 독립적인 학문분과로서 자리매김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국학이 단일민족, 단일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대외적으로 일본, 중국, 서구와 차별화되는 한국민족, 문화의 개별성, 독특성을 밝히고자 한데서 기인한다. 한국학은 “우리 고유의 문자나 언어에 대한 연구 혹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확인 내지 재해석 등의 작업”을 통해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단일하게 정형화된 문화로서의 위상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의 개별 문화 항목들은 그들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각 학문분과에 의해서 연구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국문화라고 하는 통합적인 개념이 없이 개별적인 한국학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류학계에서 한국학을 하는 연구자들은 미국학과 같이 한국문화학으로서 한국학을 재개념화하고, 이 때 한국문화는 한 민족 또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환경과의 적응 관계에서 적절한 행위를 취하게 할 수 있는 의미체계로서 이해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한국학을 하나의 지역연구로서 세계 속에 타문화, 국가들과의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화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 내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그것들을 문화라는 개념 속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학이 지역연구로서 자리매김될 때도 역시 지역연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와 세계 정치경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 세계 속의 문화들이 탈지역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문화를 과연 한반도라는 지역 속에 있는 하나의 통합된 문화로서 더 이상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의 탈지역화는 한반도라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서의 한국문화를 더 이상 성립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라는 지역 경계에 기반한 단일문화로서의 한국문화는 더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 이제 한국학은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 혼성과 분절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다국적 문화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계 도처에서 이주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경계에서의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재외한인문화를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그러면 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탈지역화된 문화 연구방법 모색

1. 인류학 현지조사 비판: 자문화와 타문화 경계 허물기+

서구인류학이 비서구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한 현지조사는 이제까지 인류학을 다른 학문과 구별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매김해왔다. 현지조사는 서구인류학사에서 진화론이 지배했던 고전인류학을 비판한 말리노프스키(B. Malinowski)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현지조사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인류학에서의 현지조사는 다른 학문에서의 민족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와 달리 현지에서 1년 이상의 장기간 체류를 통해 현지민의 언어를 습득하고 현지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연구 방식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집(home)과 현지(field)와의 거리에 기반한 구분, 현지의 지역적 경계구분, 시간에 의한 현지에의 몰입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라는 연구방법론은 인류학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인류학은 지역적 구분에 의하여 학문분과가 성립하게 되었고, 인류학자는 모두 현지, 지역, 문화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지역을 “내 마을(my village)”이라 부르면서, 특정 지역 문화의 전문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인류학 학문 내에 연구 영역은 일차적으로 지역적 경계로 만들어지고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연구주제가 결정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즉, 특정 지역의 인류학적 연구 주제와 문화 특질이 강조되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동질화, 유형화시키는 인류학적 지역주의가 성립된 것이다. 게다가 인류학자들의 대학 취업도 지역에 따라 이루어져서 인류학적 지역주의가 인류학을 구조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 문화연구의 기반인 지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오늘날의 현실이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생활양식 내지 상징체계로서의 문화가 성립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가속화 되고 있는 전지구 현상과 정보화의 물결은 급속도로 세계 문화들은 혼성과 분절을 일으키고 있고, 문화는 탈지역화되고 있다. 또한 인류학자들 내에서 현지, 지역, 문화영역이 자연적(natural)인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에 세계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인류학자들은 더 이상 서구화되지 않은 순수한 고유 문화를 가진 현지(타문화)란 더 이상 존재하기 않으며, 마찬가지로 인류학자들이 도외시한 자문화 내에서도 타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현상과 발맞추어 타학문과의 학제간 연구의 증가, 학문적 경계를 무시하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등장은 인류학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문적 차별성을 더욱 더 장기간의 현지조사에서 구하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를 둘러싼 복잡한 학문적, 지식/권력의 경합 속에서 서구인류학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포스트모던 인류학이 제기한 재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는 이제 20세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인류학자들이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지역 문화연구 방법으로 발전되어온 현지조사라는 연구방법이 현재의 문화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론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인류학에서 타문화에서의 현지조사는 특정한 형태의 현지조사를 전형적으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전형적인 현지조사의 특징은 첫째로 집(home)과 현지(away)와 거리(distance)가 필요하고, 둘째로 따라서 자문화와 타문화와의 문화적 경계가 설정된다. 셋째로 현지와의 거리는 현지로 들어가기(in)와 나오기(out)라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게 하고, 들어가기와 나오기 사이에는 특정한 시간동안의 참여관찰을 통한 현지에 대한 몰입(immersion)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지조사의 구조는 최근에 증가하는 비서구 인류학자, 탈식민(postcolonial) 인류학자, 이민온(diasporic) 인류학자, 토착(indigenous)인류학자, 또한 자문화를 연구하는 서구 인류학자들에게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었다.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운송과 통신 기술이 사용됨에 따라 지역적 거리와 차이가 변하고 있고, 현지민들도 더 이상 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연구 방법이 상황을 규정하기 보다는, 상황이 연구 방법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탈식민, 탈근대적 상황의 소산이기도 한 비서구, 탈식민, 이민, 토착인류학자들에게는 집과 현지와의 거리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제 3세계 토착인류학자(native anthropologist)들은 제 1세계에 와서 인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문화로 돌아가서 현지조사를 하게 된다. 이들에게 우리-그들의 구분은 애매모호하다. 이들은 현지조사 중 자문화의 내부인이면서도, 동시에 외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문화를 연구하는 서구인류학자들도 집과 현지의 거리와 경계가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서구인류학자들이 집과 가까운 현지를 연구하는 경우, 오히려 더 인류학적 지역주의의 위계질서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타문화와의 거리와 문화적 경계에 기초한 인류학 연구에서 자문화는 “진정한 현지조사(real fieldwork)”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서구와의 지역적, 문화적 거리와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서 현지조사의 중요도와 그에 대한 인정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집과 가까운 현지를 연구하는 서구인류학자, 토착인류학, 탈식민 인류학자, 이민 온 인류학자 들에게 장기간 현지에서의 몰입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집에서 현지로 출퇴근하면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고, 학교 강의, 학술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사용하여 제보자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과 현지의 체감 거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현지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면서 현지에 몰입한다는 기존의 현지조사 구조는 특정한 종류의 현지조사에게만 가능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현지조사의 세 가지 요소, 거리, 경계, 시간적 몰입이 이제 쟁점화될 때, 현지조사에서 현지(field)는 '저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구성(constructed)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재창출(reinventing the field) 즉, 집과 현지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되고 있다. 굽타(Gupta)와 펠거슨(Ferguson)은 현지조사를 공간적 장소에서 정치적 장소로 재이론화하고, 지역적 경계에 기반한 현지로부터 움직이는 장소들(shifting locations)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의 탈지역화 시대에 공간들이 재영토화(reterritorialized)되는 것에 주목하고, 원래의 지역에서 벗어나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장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장소 만들기(place making)를 강조한다. 이들은 장소 만들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자연스러운 개념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문화적 동질적 집단과 영토를 자연스럽게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둘째로 국가의 시민과 그 영토를 자연스럽게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한 구석에서 인도, 이슬람, 중국문화의 장소 만들기의 공간들을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들이 원래의 공간을 벗어나서 세계 도처에서 상상의 장소(imagined places)에서 장소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포스트모던인류학의 자성: 자문화 연구와 다현지조사(multi-sited ethnography) 방법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강타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류학내에서 기존의 인류학자들이 문화라는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하게 하였다. 포스트모던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현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라 명명하고, 민족지적 사실주의(ethnographic realism)를 비판했다. 민족지적 사실주의란 인류학자가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의 문화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해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 문화의 전문가-지역문화의 권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기존의 민족지들이 사실주의적 민족지임을 비판하고, 문화를 하나의 글쓰기로 보고 대안적 글쓰기를 모색했다.

포스트모던 인류학자들은 거대이론의 종말을 가져왔고, 사실주의적 민족지의 실패를 드러내 보였으나, 그들의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에 대한 강조는 1990년대 초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은 우선 현실문제보다 표현문제를 더 중시함으로써, 수사학적 분석이 과학적 분석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성공적인 민족지를 내놓지 못했다. 또 하나의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담론의 상대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근대적 문화현상과 수사학적 관심은 정치경제학자들에게는 매우 표피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포스트모던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gender)에 무관심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포스트모던 인류학자들은 20세기말 문화적 현실에 주목하고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들은 포스트모던 인류학이 비판을 받아왔던 현실에 대한 참여의 부족, 비정치성, 무성적인 측면을 극복하려고, 변화하고 있는 문화적 현실을 텍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논의는 새로운 문화연구 방법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실제 사례연구에서도 현실참여를 강조하고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스트모던 인류학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인 말커스(G. Marcus)는 20세기말 문화적 현상을 모던(modern)으로 재정의하는데, 이 때 서구적 모던(Western modernity)은 전지구적(global), 초문화적(transcultural) 현상으로써 재개념화된 것이다. 그는 이런 의미의 모던 민족지적(modern ethnography) 연구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관찰자(인류학자)와 관찰대상(현지민)을 다시 정립함으로써(remaking of the observed and the observer),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관찰대상 즉 현지민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첫번째 필요조건은 사실주의적 민족지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라는 수식어와 결별하고 지역, 공간을

쟁점화(problematizing)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실주의 민족지의 기반인 서구중심적 역사라는 수식어와 결별하고 시간, 시기를 쟁점화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회 구조라는 수식어와 결별하고 시각과 목소리를 쟁점화하는 것이다. 관찰자 즉 인류학자를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첫번째 필요조건은 특정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어구나 개념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화이해를 인류학자와 현지민간의 대화(dialogical)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류학적 연구는 이중의 초점(bifocality)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세계가 점점 더 통합되어가서 예전에 분리되어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현상들의 다양한 연관성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실험과 참여정신을 가지고 연구 지역 내에서 감지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들 병렬(juxtapositions)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민족지를 극복하는 필요조건들을 바탕으로 말커스는 다현지조사 방법(multi-sited ethnography)를 제시한다. 사실주의적 민족지 연구는 대개 하나의 현지에 대한 연구였지만, 최근에는 한 지역에 심층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세계체제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방식과, 여러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이동식 민족지(mobile ethnography)가 등장하고 있다. 이 이동식 민족지를 다현지조사라고 하는데, 이는 한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들, 대상, 정체성들의 순환을 분산된 시간과 공간대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현지조사에서 인류학자는 사람들, 물체, 상징, 이야기, 사회적 기억, 생애사, 갈등들을 따라서 여러 현지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때 연구자는 현지의 풍경(landscape) 속에서의 자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현지의 풍경이 바뀌면 자신의 정체성도 다시 재조정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자기성찰성(self-reflectivity)이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인류학자가 추구하는 지식은 헤러웨이(Haraway)가 말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라고 볼 수 있다.

말커스와 클리포드(Clifford)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경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에 끼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현재 인류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변화하는 연구 과정, 즉 연구의 성격의 변화와 새롭고 더 복잡한 연구 장소(locations)에 대한 논의이고, 두번째는 지식과 권력체제에 있는 인류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의 자기성찰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비판적 인류학(critical anthropology)의 미래는 비판적 감수성을 가지고 인류학과 다른 권력/지식영역과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문화적 유사성은 사실 기존의 현지조사의 가정들과 장치들을 수정시킬 필요를 제기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고전적 현지조사와 현재의 현지조사와의 질적인 차이는 첫째, 인류학자와 제보자간의 비교적인 평등성, 둘째, 도시적 환경 속의 장소들과 같은 새로운 현지 공간들, 셋째,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와 구분 허물기, 넷째, 엘리트와 제도적 질서, 썬브얼턴(subaltern)과 인류학자와의 구분 극복이라고 한다. 즉 새로운 현지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현지조사에서 인류학자와 현지민간의 관계는 다수적, 갈등적, 애매모호하고, 인류학자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일종의 상황적 참여(circumstantial activism)를 야기해서 시민 인류학자(citizen anthropologist)가 된다고 한다.

이들이 편집한 *Critical Anthropology Now* 에 참여한 인류학자들은 사실상 인류학자들에 의한 비서구사회의 타자화라는 비난을 피해서, 자문화로 회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들은 학문을 권력/지식체제로 보고 미국 내의 다양한 장소-연구재단, 과학자, 비영리조직, 미디어, 사이버스페이스, 가족 등을 분석하고 있다. 1980 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보다 현실 참여적이고 정치적인 인류학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IV. 한국문화와 문화연구 방법의 재창출을 향하여

문화의 탈지역화 현상과 이에 대한 서구 인류학계의 대처 방식을 볼 때, 한국 인류학은 그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인류학과는 다른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류학은 그 발전 과정을 볼 때, 다른 제 3 세계 인류학처럼 자국인류학(national anthropology)으로 발전하였다. 즉 서구에서 인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류학은 자문화에 대한 이해, 즉 자문화의 정체성 이해, 내지는 민족문화 이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서구의 인류학적 접근방식과 개념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우리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리를 두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다. 1980년대까지 인류학에서 한국문화연구에서는 서구인류학이 비서구 사회를 타자화하는 문제, 우리-그들 간의 정체성의 문제, 문화적 경계의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인류학자들이 타문화 연구가 증가하고, 또한 한국을 연구하는 한국인류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인류학 흐름의 영향 속에서 타문화와의 거리와 경계두기에 기초한 현지조사와 토착인류학자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토착인류학자에게 현지조사는 현지로 가기(away)가 아니라, 현지로의 귀환(return)이다. 인류학적 훈련이 자문화에 대한 거리두기를 가능케 한다고 하지만, 거리와 경계의 문제가 토착인류학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토착인류학자의 연구가 서구 인류학의 지역연구의 구도 속에서 자리매김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대학 인류학과에서 비서구 토착인류학자의 자문화 연구는 서구 지역연구의 범주에 잘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의 인류학적 지역주의에 의하면 토착인류학자는 동아시아의 한국학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토착인류학자들은 내부인이기 때문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이나 탈식민 연구에서는 식민지인인 내부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요한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에, “현지민(indigenous)”만이 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탈지역화 속에서 내부인과 외부인, 현지민과 외부인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히 단일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현지민의 위치는 없기 때문에 현지민의 입장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현지민 내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현지민의 입장에서(from the native’s point of view)”가 아니라, 어떤 현지민의 입장인가가 더 쟁점이 된다. 현지민은 계급, 세대, 사회적 지위, 성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ing)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부인으로서 토착인류학자도 자문화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주는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토착인류학자의 출신배경, 가족사, 계층, 세대, 지역, 성 등은 이미 자문화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게 하며, 그러한 시각의 제한성은 현지조사에서 토착인류학자에게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인류학자가 하는 한국문화 연구에서 인류학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기 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문화의 담당자를 밝히고, 한국사회, 문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한국이라고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토착인류학자들은 현지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용이하고, 현지민들은 연구결과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토착인류학자에게 연구 결과는 언제나 윤리적, 정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토착인류학자들은 거리가 너무 가까움으로 해서 서구 인류학자들과 다른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인류학이 가지고 있는 비서구사회의 타자화의 문제와 거리와 경계두기에 기초한 현지조사의 문제점은 사실상 한국 인류학이나, 한국학에서는 탈식민적 상황에서 자문화 이해라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목표에 의해 상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초기 한국인류학의 한국문화연구가 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의 추구에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인류학은 산업화, 서구화 그리고 현재의 전지구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려고 해 왔으며, 한국 문화의 다수성, 복합성을 주장해 왔다. 많은 한국토착인류학자는 자문화 속의 현지에 가까움으로 해서 현지의 문제에

보다 참여적인 인류학을 해 왔다. 최근의 인류학적 한국문화연구들은 현재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 토착인류학자들이 현지조사라는 기존의 연구방법으로, 달라진 연구주제를 얼마나 잘 파악, 분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박사논문을 위한 현지조사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현지조사 내지 빈번한 방문을 통한 현지조사, 또는 심층면접 위주의 조사를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변형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도, 거리를 둔 현지에서 장기적인 체류를 통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현지조사와 같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지역 단위가 아니라, 연구주제, 사람, 물체, 상징, 갈등, 정보 등이 된다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연구한다는 현지조사의 관행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내의 다국적적인 대중문화, 의식주 생활문화, 이주민 문화, 전지구적인 청소년문화, 또는 탈북자들, 통일문제, 정보산업, 미디어연구 등은 특정한 지역적 현지의 경계가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한국사회 내에 혼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 역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청소년들, 주한미국관련업종 종사자들- 이 참여하고 있는 장소 만들기와 정체성의 정치학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주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지조사 과정과, 한국토착인류학과 현지민(자국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자기성찰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류학과 현지민간의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문화분석에서의 권력/지식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클리포드(J. Clifford)에 의하면,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 인류학 연구 주제들은 점점 넓어져서 인류학이 “뜨거워(hot)”지고 있고, 계속 변하고, 혼성화되고 있지만, 더 “차가운(colder)” 받아들여지는 현지조사의 영역은 더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류학과 한국학을 포함한 한국문화연구에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한국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탈지역화, 혼성과 분절 등 탈식민적, 탈근대적 문화적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달라진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제는 한국인류학자에게도 하나의 통과외래인 현지조사의 신비를 벗겨내고, 서구인류학자들이 제기한 현지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면서, 탈지역화하는 한국문화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인 논의할 때가 왔다.

참고문헌

김경학. 1997.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

김광익. 2000. “양반과 상놈 그리고 토착인류학자”.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 한상복 교수 정년 기념 논총 . 소화.

김광익. 1986.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김경동. 안청시편. 한국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명혜. 2001. “문화와 경제개발과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4 집 1 호.

김성례. 1993. “탈식민지시대의 문화이해: 비교방법과 관련해서”,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김현미. 1997. “새로운 문화지평으로서의 다국적 기업연구”. 비교문화연구. 3 호.

권숙인. 1999. “대중적 한국문화론의 생산과 소비: 19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5 호

_____. 1998. “소비자본주의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4 호.

문옥표, 1995.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 23 집.

_____. 1994. “한국인류학의 지역연구 동향”, 한국의 사회와 문화 . 22 집.

_____. 2000. “한국의 인류학: 한 개인의 관점”.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 한상복 교수 정년 기념 논총 . 소화.

성시정, 유명기. 2000. “사이버문화와 종교: 전자 종교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 집 1 호.

송도영. 2000. “문화산업의 속도성과 도시적 일상문화 성격의 형성: 방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 집 2 호.

_____. 1998. “1980년대 한국문화운동과 민족, 민중적 문화양식의 탐색”. 비교문화연구. 제 4 호.

오명석. 1998. “1960-70 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 4 호.

윤택림. 1995. “지방문화의 재창출과 문화의 주체”.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윤형숙. 1996. “그들과 우리사이에서: 인류학 연구하기, 인류학자 되기”. 한국문화인류학. 29 집. 1 호.

이정덕. 1997. “미국에서의 현지조사: 뉴욕시 할렘의 경우”.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

_____. 1993. “인류학적 포스트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이태주. 2000. “인류학적 지역주의와 문화의 탈지역화: 남태평양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 한상복 교수 정년 기념 논총 . 소화.

조혜정. 1994. “전통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담론 분석”. 동방학지. 86 집.

최협. 1998. “한국문화의 연구와 그 방법”, 정신문화연구, 71 호..

한경구. 1996. “다매체시대의 사회변동과 문화”. 정신문화연구, 61 호.

_____. 2000. “프로세스적 문화 개념에서 본 일본과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의 국가 단위 문명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단상과 제언”.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 한상복 교수 정년 기념 논총 . 소화.

함한희. 1996. “한국 사회구조의 원리를 찾아서: 구미 인류학자들의 한국문화연구”. 구미 한국학 연구의 경향과 평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Amit, Vered. ed. 2000. *Constructing the Field: Ethnographic Fieldwork in the Contemporary World*. New York: Routledge.

Appadurai, Arjun. 1991. “Global Ethnoscapes: Notes and Queries for a Transnational Anthropology”. In Fox. Ed. *Recapturing Anthropology*. SAR Press.

Clifford, James. 1997. “Spatial Practices: Fieldwork, Travel and the Disciplining of Anthropology”. In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P.63.

Clifford, James and George E. Marcus. 1986. *Writing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nslin., Elizabeth. 1994. “Beyond Writing: Feminist Practice and the Limitations of Ethnography”. In *Cultural Anthropology*. 9(4).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1999.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in Gupta and Ferguson. Eds. *Culture, Power and Pla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_____. 1997. “Discipline and Practice: “The Field” as Site, Method, and Location in Anthropology”. in Gupta and Ferguson. Eds. *Anthropological Loc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raway, Donna. 1991.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Routledge.

Marcus and Cushman. 1982. "Ethnographies as Texts".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1.

Marcus, George E. and Michael M. J. Fischer.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cus, George E. ed. 1999. *Critical Anthropology Now*.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1992)

Marcus, George E. 1998. "Requirements for Ethnographies of Late-Twentieth-Century Modernity Worldwide". In *Ethnography Through Thick & Th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8. "Ethnography in/of the World System: the Emergence of Multi-Sited Ethnography". In *Ethnography Through Thick & Th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rcus, George E. 1999. "Critical Anthropology Now". In Marcus, George E. ed. 1999. *Critical Anthropology Now*.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7-8.

Merchant, Betty and Arlette Ingham Willis. eds. 2001. *Multiple and Intersecting Identities in Qualitative Research*.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Smith, Linda Tuhiwai. 1999. *Decolonizing Methodologies: Research and Indigenous Peoples*. New York: Zed Books Ltd. and Dunedin: University of Otago Press.

Stacy. 1991. "Can There Be a Feminist Ethnography". In Gluck and Patai. Eds. *Women's Words: The Feminist Practice of Oral History*. Routledge.